

# 한국가정의 전통적 생활문화에 대한 고찰

-명절, 통과의례에서의 전통적방법과 가정행사의 실제-

정영숙\* · 권수애\*  
조재순\*\* · 최미숙\*\*\*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충청전문대학 식품영양학과\*\*\*

## Literature Review on The Traditional Customs of Korean Family Life

Chong, Young Sook\* · Kweon, Soo Ae\*  
Cho, Jae Soon \*\* · Choi, Mee Sook\*\*\*

Dept.of Home Economics Edu,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of Home Economics Edu, Korea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Dept.of Food and Nutrition,Chung Cheong Colleg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raditional customs of family occasions-New Year Day, Full Moon Day, a marriage ceremony, funeral, first-year birthday, 60th birthday, other birthday, and moving a residence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content of each occasion consists of meaning, process of activities, costume, foods, plays, gifts, etc.

The following research is suggested to survey on actual family life and to develop and provide ideal program of the family occasions through 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 I. 서론

우리가 거의 무의식 중에 습득하고 있는 생활양식은 어떤 규칙과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전통이고 문화이며 문화는 길들여진 생활방식이므로 조상대대로 살아온 생활양식, 즉 의·식·주생활, 언어, 놀이, 예절, 의식절차 등의 생활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은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변화하여 한국적 전통생활양식도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병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니고 세계 속의 한국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현대생활과 조화를 이룬 한국적 전통생활문화의 전승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문화에 대한 기본개념의 정립과 함께 전통생활문화를 파악하고 현대적인 생활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변용,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여 보급, 확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양상을 보이는 생활문화를 종합하여 우리의 생활속에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한국의 전통성이 유지,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리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한정하여 가정행사를 통한 한국인의 의·식·주생활, 언어, 놀이, 예절 등을 설·추석 등의 명절, 혼례·회갑·상례 등의 통과의례, 생일·이사 등의 가정행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들 중요한 전통적 가정행사에 대한 전통문화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것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내용을 조사하고, 현대에 와서 由來나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 전통성을 계승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가정생활문화의 개념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같이 살아나가기 위하여, 욕구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과 그의 환경과의 관계에 있는 외부의 과정과, 가정생활을 형성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는 감정·정서 등 내면과정의 2과정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행동양식을 형성하는 여러가지 활동이다.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응한다는 것은 순응이 아니고, 주체성과 이상을 가지고 환경의 변화에 의도적으로 직면하며 또한 자연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주의를 중도도록 만들어가는 지적활동을 말한다(장명옥, 1984).

따라서 생활은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한 변화는 옛날 사람들이라고 변화를 마다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다. 오늘날 여러 생활풍속 속에서 '우리 것은 이것들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쌓아 올린 전통이 생활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활은 변화를 요구하며 동시에 생활은 변하지 않는 인정을 요한다.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고 변화 속에 중심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생활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여 준다(강신포, 1986).

우리의 문화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는 가족이란 것이 기본이고 우리문화의 전통은 가족주의적 문화이며 이 가족주의적인 전통이 우리가 오늘날에 세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지력이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집단 속에서 개인은 함몰되는 것이 아니다. 집단의 일원이면서도 개체로서 살고 개인과 집단이 융화되어 있으면서도 그 속에는 엄격한 상하 서열이 있어 각기 지켜야 할 윤리가 있고 이것을 지키면서 혼란을 막고 살아왔다. 한국민족에 있어서 가족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대신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문화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의 문화적인 전통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나만 딱 떼어서 볼 수 없다. 옷과 음식도 장소에 따라 다르고 우리의 의식주 자체내에 들어 있는 우리네 조상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분류체계, 준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지식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따져보면 그게 바로 큰 덩어리인 문화적 전통으로 연결된다(유재천, 1987). 무엇을 어떻게 먹고, 무엇을 어떻게 입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만들어 온 것이 생활양식이며, 이 생활양식이 개선되면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이 문화이고 전통이다. 즉 거의 무의식 중에 습득하고 있는 생활양식에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어떤 규칙과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전통이고 문화이다. 문화는 '길들여진 생활방식'이므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양식 즉,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양식이 생활문화라 할 수 있다. 즉 생활문화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결부된 문화형태를 의미하며 대중문화와 민속문화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대의 변천으로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생활양식은 크게 변화되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우리의 생활문화도 개성이 없는 획일화된 기능주의 문화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추세를 비추어 볼 때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전승과 보급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하겠다(유재천, 1987). 이러한 생활문화의 전승과 보급방안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문화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세시풍속 중에서 설과 추석, 통과의례 중에서 혼례, 상례, 들 및 회갑, 그리고 가정행사 중에서 생일과 이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I. 가정생활 문화의 유래 및 행태

### 1. 명절

#### 1) 설날

##### (1) 유래

설날은 달력의 기점으로 元日, 元旦, 年首, 歲首 라고도 하는데 일년의 첫째날을 의미한다(김동욱 외 3,

1989; 나문숙, 1989; 강무학, 1987; 중앙일보편, 1986). 설을 한자로 하면 儼日 이라고 쓰는데 이는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가한다는 뜻이다(나문숙, 1989; 장주근, 1989; 김광언 외 3, 1983).

최상수(1988)에 의하면 '설날'의 원말은 '선날'이었고, 설날의 '날'은 이 날 저 날하는 '日'의 뜻이며, '선'이란 말은 시작, 개시란 뜻이다. 우리말에서 살피볼 때 '장이 선다'는 장이 시작된다는 뜻과 같다. 그러므로 1월 1일을 '선날'이라고 했고 이는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란 의미이다. '선날'이 후대에 와서 '설날'로 된 것은 연음관계로 'ㄴ'이 'ㄹ'로 와전된 것이다.

## (2) 전통적인 설날행사

설날을 시점으로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바,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정신과 몸가짐으로 일손을 놓고 옛부터 전해온 행사를 지키는 날로써 근신과 금기와 함께 신성한 제사에 참가하는 날이다(나문숙, 1989). 신앙행사의 종류는 개인의 불행을 막고 행복을 맞이하는 행사, 각 가정을 위한 安宅의 행사, 나아가 마을 전체가 무사태평할 것과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洞祭, 특히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 공동체의 행사, 관청의 공공행사 등으로 유별할 수 있는데(나문숙, 1989; 장주근, 1989). 다음에서 설날에 하는 전통적 의식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설빔

설빔이란 새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뜻하며,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곱게 빗고 미리 마련해 놓은 새옷으로 갈아 입는다(나문숙, 1989; 그 외 다수).

어른들은 평소에 입던 복식대로 깨끗한 것이나 새로 지은 옷을, 아이들은 색동저고리에 붉은 댕기를 드리우며 대체로 보름날까지 입는다(김광언 외 3, 1983).

설빔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집안 형편에 맞게 옷을 마련하고 설빔을 입는 것은 고운 새옷을 입는 것 외에 명절을 축하하는 예절의 의미도 포함한

다(나문숙, 1989).

### 나. 정조차례

남자들은 의관을 단정히 하고 설날 아침 8시나 9시 경에 세찬과 세주를 사당이 있으면 사당에 진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청이나 안방의 북쪽에 제사상을 차린다(김성원, 1987; 김광언 외 3, 1983).

대상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4대 이하의 돌아가신 조상에 한하며 그 이상은 한식차례로 모시거나 9월 9일 차례, 또는 10월 시제로 모시고, 제주는 장자나 장손이 된다. 제사는 큰집에서 지낸다(김성원, 1987; 김동욱 외 3, 1989; 김광언 외 3, 1983).

차례 상차림은 기제사 때와 거의 같으나 설날에는 메(밥)대신 떡국을 올려 놓기도 하며 헌작(술을 올리는 것)은 1번으로 하고 축문을 읽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제주가 젓상을 바라보아 오른쪽을 동쪽, 왼쪽을 서쪽이라 한다.

△ 제 1열에는 신위 앞에 시점(손가락을 담아 놓는 대접), 잔반(잔과 술을 받는 받침대), 떡국을 놓는다.

△ 제 2열에는 서쪽부터 초간장과 육전(고기부침), 소적(두부), 육, 어 및 닭적, 생선부침을 놓는다.

△ 제 3열에는 서쪽부터 육탕, 두부탕, 어탕 중 선택해 놓는다.

△ 제 4열에는 서쪽부터 포(머리가 동쪽, 꼬리가 서쪽), 익힌 나물, 김치, 간장, 식혜 순으로 놓는다.

△ 제 5열에는 과일을 서쪽부터 대추, 밤, 배, 감, 사과 등을 차례로 놓는다.

△ 앞쪽에는 작은 보존상을 두고 서편에 향로와 동편에 향합을 놓고 그 아래 퇴주기, 모사기, 동편 아래에는 술병을 둔다.

차례를 지낼 때는 먼저 신위를 중심으로 동쪽에 남자자손, 서쪽에 여자자손, 가운데 제주가 자리를 한다.

다음은 제주가 꿇어 앉아 강신잔에 술을 따라서 3번 나누어 모사그릇에 비운 다음 2번 절한다.

왼쪽 사람이 잔을 들어 제주에게 주면 제주는 잔을 받아 들고 오른쪽 사람이 그 잔에 술을 따르면 제주는

오른쪽으로 잔을 3번 돌린 뒤 오른쪽 사람이 그 잔을 받아 상에 올린다.

제주가 떡국에 숟가락을 담그고 젓가락을 들어 접시에 3번 굴린 후 가지런히 하여 음식위에 놓는다.

현착한 제주와 자손들은 2번 절한다.

6-7분 기다린 후 숟가락과 젓가락을 접시에 거두어 들고 전체가 다시 2번 절한다.

제주가 지방을 불사르고 제수를 물리면 차례는 끝난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조상께서 복을 내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차례를 지낼 때 여자는 4번 절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나 요즈음은 남자와 같이 두번씩 절하는 경우가 많다. 절을 할 때 손의 위치는 남자는 평상시와 같이 왼손이 위로가게 하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도록 한다(중부매일, 1991; Queen 편집부, 1991).

#### 다. 세배

차례가 끝나면 어른에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세배라 한다. 처음에는 조부모, 부모, 백숙부모, 형제 등 차례로 절을 하고 새해 첫인사를 드리고 나서, 차례 지낸 음식과 떡국으로 아침식사를 마치고, 일가 친척과 이웃의 어른들을 차례로 찾아가 새해 인사를 하면 세배를 받은 축에서 어른일 경우는 주식, 아이들에게는 과일과 돈으로 대접하며 정담을 나누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주는 세뱃돈은 저축정신을 기르라는 뜻에서, 곧 계란을 사서 닭으로 돌려 다시 송아지에서 소로 돌려 논밭을 장만하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사당을 모신 집이 있으면 먼저 사당에 절을 한 다음 세배를 드린다(여성대백과, 1986).

옛날 부인들은 세배를 다니지 못하므로 婢女를 곁에 단장시켜 대신 친정이나 사돈간에 새해 문안을 드리게 했는데 이 비녀를 問安婢라고 하였다(나문숙, 1989).

#### 라. 덕담

정초에 어른이나 친구를 만났을 때와 세배할 때에 인사를 교환하는데 이를 덕담이라 한다(21C 여성대백과 1986). 새해인사를 할 때 아랫사람이 “과세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형편에 맞게 “새해 복 많이

받게” 또는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게” 등의 말로써 인사를 나누게 된다. 이는 서로의 복을 비는 축의가 포함되어 있다(김동욱 외 3, 1989; 김광언 외 3, 1983).

#### 마. 성묘

차례를 모시고 조찬을 마친 다음 조상의 묘를 찾아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다는 인사를 조상에게 생존처럼 인사드리는 것이다(나문숙, 1989; 김광언 외 3, 1983). 차례때 쓴 제수 이외에 간단한 주과포를 별도로 장만하여 가장 옷대 산소에서부터 차례로 성묘를 하는데 상 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설날에 하게 된다(나문숙, 1989).

#### 바. 세찬, 세주

설에 먹는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고 세찬은 빈부의 차이와 차례를 지내는 집과 지내지 않는 집에 따라 마련하는 음식이 다르나 어느 집에서나 만드는 것은 흰떡이다. 흰떡을 썰어 쇠고기나 꿩고기를 넣은 장국에 끓이는데, 떡국은 차례상에도 오르고 설날 아침에는 꼭 이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나문숙, 1989) 떡국을 한 그릇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뜻이 있다(한복선, 1990).

설날음식으로는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떡국, 떡만두국, 떡볶음, 떡찜, 떡산적, 떡잡채가 있고, 고기 음식으로 갈비찜, 사태찜, 생선찜, 편육, 족편이 있으며 지짐으로는 녹두빈대떡, 각색전이 있고 채소 음식으로는 삼색나물, 겨자채, 잡채, 장김치가 있고 신선로를 마련하기도 한다. 후식류로는 약과, 다식, 정과, 엿강정, 강정, 산자, 식혜, 수정과 등이 있다(한복선, 1990).

세주는 설날에 먹는 술을 말하는데 이를 도소주라고도 하였다. 도소주는 여러 가지 한약제를 넣어 만든 술이다. 이 술을 설날에 마시면 병이 생기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전한다(김광언 외 3, 1983)

#### 사. 복조리

설날 그믐날 자정이 지나 1년 동안 필요한 만큼 복조리를 사서 한데 묶어 방의 구석이나 부엌에 매달아 두었다가 쓰는데, 이것은 그 해의 복을 많이 받는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나문숙, 1989; 김광언 외 3, 1983; 중앙일보편, 1986).

#### 아. 야광귀

설날 밤에 「야광귀」라는 귀신이 있어 인간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의 신을 신어 보고 맞으면 신고 간다고 한다. 이 때에 신을 도적맞은 사람은 1년 동안 운수가 나쁘다고 하여 신을 방이나 다락에 넣어 두고 자며, 체를 걸어 두어 야광귀가 내려오다가 체를 발견하고 체의 눈이 많으므로 몇 개나 되나 세느라고 신을 흠칠 생각을 잊고 닭이 울면 도망가 버린다고 한다. 또 야광귀를 쫓기 위해 밤에 일찍 대문을 걸어 잠그고 금줄을 치며 딱총을 놓아 큰소리를 내어 쫓기도 한다(김동욱외 3, 1989; 김광언 외 3, 1983; 중앙일보편, 1986).

#### 자. 세화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설날 궁중의 그림을 그리는 관서인 도화서에서 수성, 선녀 등의 그림을 그려 임금에게 드리고 또 서로 선물도 하였는데, 이것을 세화라 하고 또 황금 갑옷을 입은 두 장군상을 그려 대궐문 양쪽에 붙이며 이것을 문배라 한다. 귀신을 잡는 형상을 그려 붙여서 재액과 나쁜 병이 물러가며 벽에 닭과 호랑이의 그림을 그려 붙여서 액이 물러가기를 빈다(장주근, 1989; 임동권, 1989).

#### 차. 3일 파시

설날부터 3일까지는 승정원에서는 각 방의 공무를 보지 않고 모든 관청도 열지 않으며 시장도 문을 닫고 감옥도 비운다(장주근, 1989; 임동권, 1989).

#### 카. 머리카락 사르기

남자나 여자나 1년 동안 머리를 빗다가 빠진 머리카락을 빗 상자속에 모아두고 반드시 설날 황혼을 기다려서 문 밖에서 태움으로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염병을 쫓는다고 하며(장주근, 1989; 김광언 외 3, 1983)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임동권, 1989).

#### 타. 점복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알고자 하는 방법으로 점복이 등장하였고 가장 일반적인 것이 토정비결이다. 토정비결은 1년 동안의 신수를 월별로 나타낸 것이며(나문숙, 1989), 오행점은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을 새긴 나무와 엽전을 던져 나타난 글자를 보고 점괘를 얻는다. 이 밖에도 설날 아침에 거리에 나가 처음 듣는 소리로 1년의 운수를 점치는 풍습으로 까치 소리를 들으면 길하고,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불길하다고 믿어 한해의 운수를 점치는 청참이 있고, 옷을 가지고 점치는 옷점 등이 있다(장주근, 1989; 김광언 외 3, 1983).

#### 파. 법고

수도승들이 마을에 들어와 복을 치거나 요령을 흔드는 것을 법고라 하고, 정초에 수도승들이 속계에 내려와 집집마다 방문하여 법고를 치고 염불을 하면 가정에서는 돈이나 쌀을 시주한다. 또 승려들은 떡을 가지고 와서 시주를 한 집에 하나씩 주고 가는데 이 떡을 아이들에게 먹이면 천연두를 앓지 않는다고 한다(김광언 외 3, 1983; 장주근, 1989).

#### (3) 의복

설날에는 살림 정도에 따라서 설빔을 마련하는데 색상은 다양하고 새로 한복을 마련하기 보다는 있는 한복을 지혜롭게 조화시켜 입는 것을 권한다.

저고리는 차갑지 않으면서도 가라앉는 듯한 깊은 색이 적당하며 치마는 저고리보다 짙어 옷웃을 받쳐주는 듯한 분위기의 색이 좋다. 복청색 치마에 주황색이나 벽돌색 저고리, 쥐색 치마에 붉은 보라색, 포도주색 치마에 은행색 저고리 등이 잘 어울린다. 저고리는 안섶과 바깥섶이 바르게 놓여 동정이 맞도록 하고 웃고름의 고는 왼쪽에 하나만 만드는 것이 옳는데 한 번 묶어준 후 긴 고름으로 고름 만들고 짧은 고름으로 이를 한바퀴 돌려 감싼 다음 묶으면 된다. 긴 고름과 짧은 고름의 길이가 2-3cm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좋다. 두루마기는 밝고 점잖은 색을 선정하고 현관 안에서 벗

어 개켜드는 것이 바른 예절이다. 치마는 왼쪽 자락이 밑으로, 오른쪽 자락이 위로 오게 입고, 버선은 수축이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발 안쪽으로 눌러지도록 당겨 신는다.

노리개는 치마 허리끈에 달아 늘어뜨리거나 왼쪽 곁에 고리를 끼어 다는데, 이는 장식의 의미도 있지만 저고리의 쇠 늘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복은 속옷부터 겹옷의 정리까지 제대로 갖추어야 우아한 분위기를 살릴 수 있고, 속치마와 속바지는 반드시 입어야 하며, 속치마는 겉치마 길이보다 2-3cm 정도 짧아야 한다.

남자 한복에도 연두, 하늘색, 보라, 연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지, 저고리와 조끼, 미고자를 각각 같은 색상으로 통일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는다. 두루마기는 검정색, 밤색, 배추색, 쥐색, 벽돌색, 밝은 회색등이 많이 이용된다. 바지의 큰 사폭을 오른쪽으로 바짝 당겨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잘 여민 다음 허리끈을 돌려 맨다. 대님을 맬 때는 바지의 작은 사폭 시접선을 안쪽 복숭아뼈 밑에 대고 왼쪽을 밖으로 돌려 제자리에 오게 한 후 대님을 돌려 안쪽 복숭아뼈 위에서 매듭을 짓는다(중부매일, 1991; 중앙일보, 1990).

#### (4) 놀이

##### 가. 널뛰기

넓이 한 자 남짓에 길이 7, 8자 남짓되는 두꺼운 판자 중앙에 짚단이나 가마니 같은 것들을 고이고, 양쪽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힘껏 내리 디디고 뛰어 솟고 한다. 정초에는 설빔으로 곱게 단장을 해서 울긋 불긋하고 널뛰는 사람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찬란한 옷 빛깔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 춤추는 모습처럼 아름답다(장주근, 1989; 심우성, 1986).

##### 나. 율놀이

율놀이는 남녀노소 구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집 안과 바깥에서 가장 많이 즐겨왔던 전승놀이이며, 놀이방법과 율의 종류가 많으나 대표적인 방법은 동그라미 29

개의 율판을 놓고 율을 던져서 나오는 끝수대로 말 4개가 율판의 최종점을 빠져 나오는 편이 이기는 것이다(장주근, 1989; 심우성, 1986; 중부매일, 1991).

##### 다. 연날리기

정초에 세배 돌기를 마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대보름까지의 놀이로 되어 있다(장주근, 1989). 아이들이 “집안 식구 아무개, 무슨 생, 몸의 액을 없애 버린다” 라는 글자를 연뒤에 써서 그 연을 띄우다가 해질 무렵에 연줄을 끊어 버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해의 액운을 멀리 날려 보낸다는 뜻을 상징한 것이다(심우성, 1986). 연의 종류는 다양하며 대나무를 뼈로 하고 종이를 풀칠한 것이 마치 키의 모양과 같고 연줄을 붙들어 매어 공중에 띄워 바람의 흐름대로 날린다. 연놀이를 할 때에는 아교로 연줄을 문지르거나 유리조각들을 잘게 부셔서 바르고 실의 지구력을 강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줄을 끊으면 승부가 결정된다(심우성, 1986; 장주근, 1989).

##### 라. 돈치기

정초에 양지 바른 곳에 모여서 청소년들이 하는 놀이로 흙바닥 편편한 곳에 지름 3cm 정도의 반구형 구멍을 파고 3,4m 떨어진 곳에 그은 금 앞에서 각기 동전 하나씩을 구멍에 던진다. 던진 동전이 구멍에서 가까울수록 잘 던진 것으로 차례가 정해지며 1등은 전체 인원의 동전을 모아서 다시 구멍을 향해 던져 구멍에 들어간 동전은 다 그냥 가지고 나머지 동전들은 손바닥만한 둥글 납작한 돌로 맞히는 만큼 더 가진다. 이때 맞히지 못하거나, 둘 이상을 한꺼번에 맞히면 실격이 되어서 2등한 사람에게로 차례가 내려간다. 던질 동전이 없어지면 다시 시작하는데 5-8명이 모였을 때에 이 놀이가 재미있다(장주근, 1989).

#### 2) 추석

##### (1) 유래 및 의미

추석은 가배절, 중추절, 가위, 한가위 등으로 불려 지는데 가위 또는 한가위라는 말은 한가배, 한가부가

와전된 것으로 '한'은 가장 중심의 '한'이요 '가부(가부)'는 가운데(中)에 명사첨미어가 붙어 「가위」가 된 것이며 중추도 삼추에서 중간인 보름을 뜻한다(최상수, 1988; 장주근, 1989).

한가위는 추석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것은 월전 뒷날에 와서 형성된 말로서 中秋의 '秋'를 따고 月夕의 '夕'을 따서 秋夕이라 하였다(최상수, 1988).

한가위의 유래는 신라가 발해와 싸워 이긴 기념일이기 때문에 명절로 삼았으며(김광연 외 3, 1983), 신라 유리왕이 6부를 정하고 두 왕녀로 하여금 6부의 부녀자들을 두패로 나누어 편을 짜서 왕녀 한 사람씩 거느리게 하여 음력 7월 16일부터 날마다 길쌈의 협동작업을 하도록 하여 8월 15일에 이르러 그 많고 적음의 공적을 심사하여 진 편에서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온갖 놀이를 하였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갑다」의 전성명사인 '가배'가 '가위'로 된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한다(최상수, 1988; 장주근, 1989).

(2) 전통적인 추석행사

가. 벌초

추석 이삼일 전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잔디를 베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을 벌초라고 한다. 잡초가 우거지고 허물어진 묘는 보기 흉할 뿐 아니라, 자손들의 수치로 여겨지고 있다(임동권, 1989).

나. 차례 지내기

추석에 올리는 차례는 조상의 음덕으로 풍년이 들어 햇곡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아뢰는 것으로 차례 지내는 방법은 설날과 같다(나문숙, 1989).

다. 반보기

추석 무렵에 일가친척의 부인네들 사이에 양편의 중간지점에서 서로 만나 보는 반보기의 풍습이 있다. 특히 시집간 딸이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일이 각 지방에서 반보기로 많이 이루어졌고, 이 때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와서 먹고 놀며 정담을 나눈다(장주근, 1989;

임동권, 1989).

라. 달맞이

예로부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추석날 저녁에 동산에 오르거나 앞마당에서 달맞이를 하였다(김광연 외 3, 1983). 달이 떠오르면 절을 하며 소원을 빈다(나문숙, 1989).

(3) 음식

옛부터 내려오는 추석제수의 기준되는 것을 중심으로 추석음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송편 - 데 대신 햇곡식으로 빚은 송편을 올린다. 햅쌀, 햇솥을 준비하고 송편의 소로는 햅콩, 등부콩, 밤, 대추, 고구마, 꽃감, 계피가루, 들깨가루, 참깨가루 등을 사용한다.

나. 탕 - 토란탕이 제격이나 육탕, 어탕, 소탕 등 3탕이 있고 제사상에 올릴 탕은 간을 하지 않는다.

다. 삼적 - 3가지 적을 올려 놓는 것으로 어적은 송어, 조기, 도미 등을 소금으로 간을 하여 굵고, 육적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손두께 만하게 크게 조각을 떼서 양념장으로 양념하여 긴 대꼬지 두 개로 위 아래를 산적같이 꿰 다음 석쇠에 굽는다. 셋, 다섯, 일곱 꼬치 등 홀수로 담는다. 양념장에 썬 고기를 팬에 지져내어 꼬지에 꽂기도 한다. 소적은 두부를 크게 저며 노릇 노릇하게 지진다. 오적일 경우는 봉적(닭고기적), 채소적을 추가한다.

라. 포 - 북어포가 가장 보편적이고 동해안에서는 오징어포, 남쪽에서는 상어포, 대구포를 사용하기도 한다.

마. 편 - 시루떡을 메편, 찰편으로 마련하고 고물로는 거피팍, 녹두, 깨 등을 쓰며, 붉은 팥고물은 쓰지 않는다.

바. 갈납 - 전유어를 말하며 흰살 생선을 얇게 떼서 밀가루와 달걀을 입혀 지져 낸다.

사. 숙채 - 삼색 나물로 고사리(갈채), 시금치(청채), 도라지(백채)를 한접시에 담는다.

아. 침채 - 동치미나 나박김치가 쓰인다. 나박김치는 무, 배추, 미나리로 담고 화려한 고명도 넣지 않는다.

자. 식혜 - 밥알만 건져 제기접시에 한 그릇 담고 위

에 대추를 세 조각 올려서 얹어놓는다. 대추 대신 북어포나 문어포를 올려 놓기도 한다.

차. 청장 - 국간장

카. 햇과일 - 대추, 밤, 배, 감, 사과를 짝수 종류로 마련하여 각기 따로 담고 밤은 껍질을 벗기고 사과는 아래와 위를 도려낸다.

타. 제주 - 청주

파. 유과류, 다식

추석 제주 이외의 명절음식으로는 밤단자, 토란단자, 호박시루떡, 송이회, 송이산적, 송이전골, 송이찜, 닭찜, 닭산적, 닭누름적, 밤초, 밤다식, 울란, 대추초, 조란, 배화채, 배숙, 수정과 등이 있다(박경자, 1991; 한복선, 1990; 윤서석, 1980).

#### (4) 놀이

##### 가. 강강수월래

뜰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는 놀이로 불빛에 상기된 얼굴이 꽃처럼 곱고 치렁치렁한 머리채도 덩달아 춤을 추어, 그 모습이 아름답다. 노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 다양하다.

##### 나. 씨름대회

씨름은 두 사람의 힘겨루기 내기로서(김성배, 1980) 추석 다음날인 16일은 충청도 시골풍속인 씨름대회를 열고 술과 음식을 차려 먹으며 즐긴다. 대개 농한기가 되어 휴식을 취하느라 그렇게 한다고 동국세시기에 적혀 있으나 다른 지방에서도 씨름대회를 개최한다(장주근, 1989; 김성원, 1987).

##### 다. 소놀이

두 사람이 각각 궁둥이를 대고 엎드린후 그 위에 명석을 씌우고 앞 사람은 밑에서 잘 짝은 막대기를 두 개 내밀어 최빨처럼 보이게 하고 뒷 사람은 동아줄 한 가닥을 늘어 뜨려서 최꼬리처럼 보이게 한다. 농부 한 사람이 소 고삐를 잡고 소 뒤에는 농악대가 따르고 그 뒤에는 농부들이 따른다. 소를 앞세운 일행은 부잣집

으로 가서 “소가 배가 고파서 왔으니, 여물을 주시오” 하고 외치면 주인은 술, 과일, 떡 등을 차려 대접하고 이때 소는 여러가지 흥내를 내고 놀며 웃고 즐긴다(장주근, 1989).

##### 라. 거북놀이

거북을 만들고 아이들 두 명이 안에 들어가 거북이 되고 어른들이 농악을 치면서 뒤를 따른다. 농악대가 먼저 먹이 나올 만한 집들을 찾아가서 문안을 하고 거북을 끌고가는 질라아비가 덕담으로 수문장굿, 용왕굿, 마당굿, 조왕굿, 도랑굿 등을 차례로 하고 놀며 한 집에서 30-60분이 걸리며 주인집에서 큰 상을 마당에 차려 일동을 대접한다(장주근, 1989).

##### 마. 소싸움과 닭싸움

경남 일대에서는 봄부터 여름내 소먹이는 아이들이 소싸움을 붙여 힘센 소를 뽑아 추석에 열리는 큰판에 나가서 소싸움을 한다. 승부는 소가 밀리거나 달아나면 지게 되는데 이긴 소는 목과 뺨에 비단과 종이꽃으로 장식하고 머슴이 타고 풍물을 울리고 주인 집에 오면 술을 한턱 낸다.

닭싸움도 경남에서 많이 실시되는데 싸우다가 앉거나 주둥이가 땅에 닿으면 진다(장주근, 1989).

## 2. 통과의례

### 1) 첫들

#### (1) 의미

아기가 태어난 지 만 1년이 되는 첫 생일을 첫들이라 하며 첫들은 初度日, 初生日, 周日, 周年, 혹은 卅라고 부르기도 한다. 들이란 말은 周 또는 回 등과 같은 뜻을 지닌 말로서 1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반복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첫들, 두들과 같이 보통 유아기 아이의 생일을 셈하는데 쓰이는 말이다(안은희, 1982; 김광언 외 3, 1983).

일생을 통해서 볼 때 첫들은 출생이나 백일, 회갑, 장례와 더불어 그 당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 중의 하나이며(김동욱 외3, 1989), 기자(祈子), 임



신, 출산, 산후의례로 이어지는 출산의례의 마지막 단계가 된다(이두현 외 2, 1987).

의학기술이 덜 발달했던 시기에는 유아가 출생하여 1년 이내에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첫돌을 맞이한다는 것은 성장의 초기 과정에서 한 고비를 넘겼음을 의미하며 그 고비를 넘긴 기쁨을 축하하게 된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습속으로 생활화된 것으로 여겨진다(안은희, 1982; 김광언 외 3, 1983; 중앙일보편, 1986; 파당, 1987). 그리고 첫돌날은 아이의 앞날을 축하하며 무병장수와 부귀복록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돌상을 차려주고 잔치를 베푸는 풍속이 있다(안지영, 1987; 안중수, ; 그외 다수). 돌상을 차려주는 것은 이때부터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의미가 있으며(최상수, 1990; 김상혁, 1990) 돌웃을 입혀 돌잡이를 하게 하며 재물을 즐긴다.

(2) 전통적 첫돌 행사

은 집안의 큰 경사인 첫돌날에 하는 전래의 의식행사는 아이의 만수무강과 장수복록을 축원하는 치성을 드리며, 아기의 의복을 지어 입혀 성장시킨다. 그리고 돌상을 차려서 돌잡이를 하며 가족과 친척, 친지를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며, 동네 이웃에게는 돌떡을 돌린다(안은희, 1982; 중앙일보편, 1986; 그 외 다수). 초대받은 손님이나 돌떡을 받은 집에서는 아기의 건강과 장수복록을 기원하는 인사와 함께 선물로 답례한다.

첫돌에 관한 풍속은 각 지방별로 비슷하며 장수와 부귀를 기원하는 풍속은 예나 지금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안은희, 1982). 첫돌날에 치르는 의식행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치성

안은희(1982, p.550)에 의하면 “치성행위는 산신(일명 삼신)에 대한 치성이 주가 되며 혹 만신당에 가서 돌 전날 치성을 드리기도 한다. 치성을 드릴 때 삼신상을 차리는데 흰밥과 미역국, 정화수를 차리고 애기 시루(삼신시루:시루떡)를 찌서 상 옆에 놓는다. 애기 시루떡은 밖으로 나가면 아기의 복이 줄어든다는 속설

이 있다. 삼신상을 차려 놓은 다음 치성을 드린다. 남자는 대부분 참석하지 않으며 할머니 또는 산모가 치성을 드리는데, 두 손을 비비고 원하는 말을 하면서 절을 반복한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타인(주로 무당, 박수)의 도움을 받아 출산에 대한 감사와 장수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치성 행위의 목적은 아기를 점지해 준 삼신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삼신의 초인적인 능력에 힘입어 나쁜 인연을 끊고 장차 아기의 무병과 복록을 누리도록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 주가 된다(김광언 외 3, 1983, p.228).

나. 돌웃

돌날 아이에게 입히는 옷을 돌웃이라 하며, 돌웃은 화려한 색으로 만든다.

돌웃의 종류와 색은 남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 있다. 몇몇 문헌에 나타난 남녀 돌웃의 종류와 색깔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남녀아 돌웃의 종류와 색

	안은희 (1982)	안지영 (1987)	최상수 (1990)	김상혁 (1990)
남아	바지	보라/회색	분홍	가지색
	저고리	분홍/색동	색동	연두색
	조끼	남색	고운색	남색
	마고자	색동	고운색	연두색
	두두마기	색동	고운색	분홍
	패자(전복)	금 은박		남색
	피/홍사대	0*		다홍
	버선	0	0	0
	주머니	0		0
	열날	0	0	검정
여아	단속곳		노란색	노란색
	치마	빨간색	빨간색	다홍/진분홍
	저고리	색동	색동	노랑색동
	마고자			연두색
	배자		남색	남색
	버선	0		0
	피	0	0	
	노리개/장식물	0		0
	주머니	0	0	0
	열날	0		0
조바위	금은박	0	금박	

\* 색에 대한 언급 없이 종류만 설명되어 있음

다. 돌상

돌상은 떡과 과일이 주류를 이루며 이 밖에 돌잡이 하기 위한 물건들이 놓이게 된다. 문헌을 통해서 돌상에 놓이는 품목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돌상차림

	정몽화 (1988)	주기영의 (1988)	안지영 (1987)	최상수 (1990)	윤서석 (1988)	황혜성 (1988)
떡						
백설기	떡	0	0	0	0	0
수수경단	0	0	0	0	0	0
인절미/찰떡			0			
송편		0		0	0	0
무지개떡				0		
대추나 밤 설기					0	
과일						
사과	과일	실과	과일	0	0	과일
배				0	0	
대추		0	0	0	0	
흰 쌀					0	
미역국					0	
흰 쌀	0	0	0	0	0	0
국수	0	0				0
돈	0	0	0		0	
청홍실/무명실	0	0	0	0	0	0
책		0	0	0	0	0
붓 벼루 먹	0	0	0	0	0	0
활 화살(남아)	0	0	0	0	0	0
가위 (여아)	0		0			
자 바늘(여아)	0			0		0

라. 돌 잡히기

성장을 한 아이가 돌상 앞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싶은 물건을 잡는 것을 보고 아이의 장래를 점치는 행사인데, 試拈, 試周, 혹은 試兒라고도 한다(안은희, 1982). 아이가 돌상 위에서 제일 먼저 잡는 것과 두번째로 잡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잡는 물건의 의미에 따라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미리 점쳐 보는 것이다. 돌상에 놓인 음식과 물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김성배, 1983; 그외 다수).

- 돈, 쌀, 떡 : 식복 혹은 부자
- 실, 국수 : 수명장수
- 대추 : 자손번창, 장수
- 책, 먹, 붓, 벼루 : 학문, 학자, 벼슬, 선비
- 활, 화살 : 무술, 무예
- 가위, 자, 바늘 : 바느질 솜씨, 길쌈, 수공

마. 첫돌 선물

돌 잔치에 참석하는 친척이나 친지는 음식 대접을 받으며 첫돌을 축하하는 선물을 하게 된다. 이웃에 돌린 돌떡을 받은 집에서도 선물을 하는데 돌떡을 담은 그릇은 씻지 아니하고 그 그릇에다 적으나마 물품이나 돈을 담례로 보낸다. 그 돈은 집에서 쓰지 않고 돌잡이를 위하여 증식시키는 방법을 마련하기도 하고 밀전이라고 해서 귀중하게 여겼다(안은희, 1982, p.560). 첫돌에 하는 선물의 품목은 밥그릇, 은수저, 옷, 실, 무명, 곡식, 반지, 돈, 신발, 장난감, 식품류 등이다. 특별한 의미는 없으나 구두나 신은 고모가, 밥그릇이나 수저는 조부모가 선사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다(정몽화, 1988; 안지영, 1987; 주월영, 1983).

2) 回甲.還甲(회갑, 환갑)

(1) 의미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지 60년이 되는 해 즉, 61세가 되는 해를 환갑 혹은 환갑년이라 하고 그 해의 생일을 환갑일 혹은 환갑이라 한다. 환갑이란 자기가 낳은 해로 돌아왔다는 뜻으로(김성배, 1983), 華甲, 周甲, 花甲, 回甲이라고도 부른다(민제, 1982; 최상수, 1990).

평균수명이 길지 않던 시절에는 환갑일부터는 남의 나이를 먹는다가나 세상을 두번 사는 거라고도 말하였다. 환갑까지 산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운 일로써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한중수(1985)에 의하면 회갑잔치를 행하는 풍습은 중국 명나라에서 전래된 것이라 한다. 어쨌든 자손이 부모의 회갑 잔치를 마련하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의미를 가진 미풍으로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욱 장수하기를 기원하는 행사로서(김상혁, 1990; 안지영, 1987) 평생의례의 하나이기도 하다(최종호, 1988). 환갑일은 택일을 하여 생일날보다 당겨서는 하나 생일을 지나서는 하지 않는다(민제, 1982).

(2) 전통적 환갑 의식 행사

환갑의례는 生者와 死者에 대한 의례가 있어서 生者에 대해서는 장수와 행복을 빌고 死者에 대해서는 명복과 재생을 비는 의미가 있다(최종호, 1988). 환갑날에 환갑주는 자손들이 준비한 의관을 갖추고, 환갑상(큰상) 앞에서 헌수(술과 절)를 받으며 초청된 친척, 친지의 축하 속에서 수연 잔치를 즐긴다.

만약 환갑주의 배우자가 돌아가셨으면 지방을 모시고 수연을 올리게 된다(조기홍·박경자, 1988). 그리고 만약에 환갑주의 부모가 생존해 계시면 五色班之慶이라 하여 환갑주가 색동 저고리를 입고 먼저 부모에게 헌수한 후에 환갑상을 받는다. 환갑주의 부모나 형제도 큰 상은 따로 받는 경우가 있으며, 부모 생존시는 부모 앞에서 환갑주가 들잡이를 하기도 한다(민제, 1982: 서문당 편집국, 1971). 환갑주의 친구들은 韻字를 내어 詩나 賦를 주고 받기도 한다.

환갑잔치의 규모는 집안형편이나 계절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풍습의 내용도 가문이나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회갑잔치는 하루에 마치기도 하지만 여러 날 걸리는 예도 있다. 환갑주의 의복, 환갑 상차림, 헌수, 초청창, 축하선물 순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가. 의복

자손들은 환갑주의 한복 일습뿐만 아니라 환갑주 배우자와 환갑주 부모의 한복도 새로 장만한다. 남자 환갑주는 속내의,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사모관대, 도포 등을 입으며 여자 환갑주는 치마, 저고리, 마고자, 두루마기, 원삼, 족두리, 타래버선, 한삼을 입는다(민제, 1982: 최종호, 1988). 환갑주의 의복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회갑때 수의를 만들기도 하며 회갑일에 수의를 입기도 한다(최종호, 1988). 자녀들은 검은색과 흰색을 피하고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는다.

나. 환갑상(큰상)차림

환갑상을 차리는 장소는 큰방이나 대청 또는 마당이며, 환갑날 아침식사 후에 차리기 시작한다. 고갯상에

목기를 놓고 그 위에 음식을 고이는데 자손의 효성이 음식 고인 높이에 비례한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다. 음식은 가계 형편에 따라 5치 높이부터 홀수 높이로 고인다. 옛날에는 숙수라고 부르는 이가 음식을 전문으로 맡아 만들고 상까지 차렸다. 큰상 옆에는 결상을 차려 면, 신선로, 화채, 식혜, 나박김치, 편육, 간장등을 놓는다(서문당편집국, 1971: 김광언·이광규, 1983: 한중수, 1985: 최상수, 1990). 환갑주의 노모가 생존해 계시면 들상도 준비한다(혜원출판사편집부, 1988). 환갑상차림에 괴는 음식은 지방과 계절, 가계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 맨 앞쪽 줄에 주로 실과루를 놓고 그 뒷줄에 전을 놓는다(김광언, 이광규, 1983). 환갑상에 놓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과일(건과, 생과) - 대추, 밤, 꽃감, 은행, 호도, 잣, 귤, 사과, 배

유과 - 약과, 강정, 산자

정과 - 연근정과, 문동정과, 동아정과, 생강정과, 유자정과

다식 - 흑임자다식, 송화다식, 녹말다식, 승검초다식, 황밤다식

적 - 최고기적, 닭적, 복어적, 생선적

포 - 어포, 육포, 건적포

전 - 생선전, 칼전, 고기전, 파전

초 - 전복초, 면초

어물 - 조기, 홍어, 송어, 상어

편 - 백편, 찰편, 꿀편, 승검초편

당숙 - 팔보당, 졸병, 온당, 꿀병, 원당

다. 헌수

환갑상 앞에 앉은 환갑주에게 자손들이 장수를 축하하는 술을 드리며 절을 하는 의식을 말한다. 절하는 순서는 직계로부터 방계로 그리고 남자로부터 여자로 하며 결혼한 자녀는 부부가 함께 절한다. 절하는 횟수는 지역이나 성별, 촌수에 따라 한번에서 네번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민제, 1982). 자손들은 헌수가 끝난 후에 춤을 추기도 하는데 이 춤을 彩衣舞라고 부른다. 헌수가 끝나면 축하 손님에게 잔치를 베푼다.

라. 환갑 축하 선물

환갑주의 가족, 집안, 친지, 이웃은 환갑주에게 부조를 하거나 기념이 될 만한 선물을 한다. 이 때 하는 선물에는 의복, 침구, 옷감, 주발대접, 단장, 책, 서화, 술, 담배, 담뱃대, 신발, 금전, 실과, 약식, 떡 등이었다. 부조나 선물은 단자를 써서 봉투에 넣어 보내기도 하고 단자없이 봉투에 넣기도 한다. 단자와 봉투에는 환갑을 축하하는 글귀와 보내는 이의 이름을 쓰고, 단자에는 선물의 내용이나 부조액수, 연월일을 함께 쓴다(정몽화, 1988; 안지영, 1987; 민계, 1982; 조기홍·박경자, 1988; 그외 다수).

환갑을 축하하는데 쓰이는 문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祝壽宴, 祝回甲, 祝還甲, 祝華甲, 祝禧筵, 祝儀, 祝筵, 祝壽筵, 壽儀, 賀儀 (만수무강을 비읍니다., 삼가 회갑을 축하합니다., 삼가 수연을 축하합니다., 삼가 수연을 축하드리며 만수무강을 빕니다.)

마. 환갑잔치 초대

환갑 수연에 초대하는 청첩은 대체로 환갑주의 자녀들이 하게 된다. 초대하는 손님을 직접 찾아가서 초청 말씀을 하는 것이 좋고, 직접 가지 못할 경우에는 편지를 쓴다. 불가피하게 인쇄된 청첩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는 적어도 보름 전에 돌려야 한다(서문당편집국, 1971; 중앙일보편, 1986; 해원출판사편집부, 1988; 김상현, 1990).

3) 혼례(昏禮)

(1) 의미

혼례는 家禮 중 四禮인 성인지례, 혼인의식, 상·장례, 제례의 하나로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 부부가 되는 의식절차를 정한 것이다(김동욱 외 3, 1989).

혼인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라면 婚禮라고 해야 할텐데 昏禮라고 하는 까닭은 혼인 예식은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해원출판사 편집부, 1988; 김용숙, 1989). 혼

인 예식을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이유는 남과 여가 만나 부부가 되는 예식인데 그 시간은 양인 낮과 음인 밤이 교차하는 시간인 해가 저무는 때가 타당하다는 취지와 혼인 예식이 끝나면 곧바로 첫날밤을 차리는 合宮禮를 치뤄야 했기 때문이다(김득중 외 3, 1988).

婚姻은 장가든다는 뜻의 婚 < 처녀(昏)에 여인(女)을 만나는 것> 과 시집간다는 뜻의 姻 < 중신하는 여자(女)로 因해서 남자를 만난다는 뜻> 의 뜻을 담고 있는데 요사이 혼인이라는 낱말 대신 많이 쓰이는 결혼이라는 말은 장가든다는 의미만 담고 있으므로 마땅히 결혼이 아니고 혼인이어야만 정확하게 장가들고 시집가는 부부가 되는 일을 말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우리 나라의 모든 법률에서는 결혼이란 말은 쓰여지지 않고 반드시 혼인이라고 쓰고 있다.

(2) 혼인 절차

우리 나라의 전통혼례라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많은 차이점이 있고, 중국의 禮書에 의한 것과 순수한 우리 나라의 혼인절차 사이에도 차이가 많다. 그것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周六禮	朱子四禮	傳統六禮	現行九禮
납채	의혼	혼담	맞선·교제
문명		사주	사주
납길	납채	택일	택일 약혼
납징	납폐	납폐	함보내기
청기		예식	예식
친영	친영	우귀	폐백 신혼여행 우귀

주육례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중국 周나라 때의 혼인절차였으나, 지금부터 약 800년전의 중국 宋나라 때 학자 朱子가 육례는 복잡하다고 하여 四禮로

조정하였다. 주옥례나 주자사례가 우리 나라에 들어왔으나 이는 상류지배계층에서만행해졌고, 절대다수의 서민대중은 우리 나라의 전통관습에 의한 육례에 의한 혼례를 행하다가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신식혼인절차가 도입되어 행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통관습에 의한 혼인예식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讖婚 (의혼) : 신랑 신부감을 둔 집에서 혼인 적령기가 되면 상대방을 구하기위해 의논하는 것으로 중매로 하여금 왕래하여 상대편의 가문, 인물, 성품, 학식 등을 알아보고 조건이 맞으면 양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통혼례에서는 이 때 구합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였으며 혼사의 성립을 좌우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김현영, 1985).

나. 納采(납채) : 서로 혼인해도 좋겠다는 의사가 교환된 후에 정식으로 남자의 사주를 여자 측에 보냄으로서 定婚이 되는 것이다. 납채에는 신랑감의 사주와 정중한 청혼서를 보내는데, 사주는 위아래를 청·홍실로 묶어 청·홍겹보에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싰다. 사주함속 밑에 신부의 한복 한 벌 감이나 은가락지같은 간단한 예물을 넣기도 하였으며, 사주함도 청·홍겹보에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싰서 여자 측에 인편으로 보낸다 (서문당편집부, 1971).

다. 納期, 擇日, 消吉(납기, 택일, 연길) :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 혼인예식의 날짜를 잡아서 정중한 허혼서와 함께 인편으로 남자 측에 전한다.

라. 납폐(納幣:함보내기) : 남자 측에서 여자 측의 혼인 허락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혼서와 幣角(예물)을 보내는 절차이다. 혼서는 붉은색 금전지를 네 귀퉁이에 단 검은색 겹보에 싰서 근봉띠를 둘러 함에 넣는다. 여자는 이 혼서를 일생동안 간직하였다가 죽은 뒤 관 속에 넣는다고 한다. 납폐의 예물로 비단을 썼기 때문에 綵禮이라고도 하며 여자의 옷감으로 청·홍색한 가지씩을 넣는데 아무리 많

아도 10필을 넘을 수 없으며 아무리 작아도 2필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청색채단은 홍색종이로, 홍색채단은 청색종이로 싰서 각각 청·홍실로 묶고, 함속에 백지를 깔고 넣은 다음 채단의 내용과 수량을 적은 物目記를 넣은 봉투를 엮고, 함은 붉은 보에 싰서 묶은 매듭에 謹封이라고 쓴 봉합지를 끼우고 무명 한 필로 맷끈을 만든다. 함을 지고 가는 사람은 擔幣者, 함애비, 중망이라고 하며 대개 다복

하고 팔자 좋은 사람으로 하여 흑단령에 구슬로 만든 갓끈을 단 복색을 하였다(김성배, 1983). 함을 받으면 조상에 고한 다음 신부 어머니가 여는데, 손만 함안으로 넣어 먼저 잡히는 옷감의 색에 따라 홍단이면 컷아 들이고 청단이면 컷딸이라는 풍속이 전해지는데 지방에 따라 반대인 경우도 있다 (박혜인, 1987). 보통 납폐는 奠雁 전날 치르기도 하나, 날의 길흉과 시세에 따라 혼례일 며칠 전에 보내기도 하였다 (김광언 외 3, 1983).

마. 初禮 : 대례라고도 하며,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실제적인 혼인과정으로 혼인예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醴子, 醴女禮(초자, 초녀례) : 혼인당사자가 조상과 부모의 은덕을 기리며 혼인함에 있어 서약하는 誓父母禮

· 奠雁禮(전안례):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기러기를 드리는 일(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치고 배우를 다시 찾지 않는다고 하여 자손창성과 정절을 지키는 새이기 때문)

· 交拜禮(교배례): 부부가 될 남·여가 만나 인사하는 相見禮

· 誓天地禮(서천지례): 영원불변하는 하늘과 땅에게 서약하는 禮

· 誓配偶禮(서배우례): 신랑과 신부가 부부되기를 직접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예로 서로 술을 교환해 마신다.

· 근杯禮(근배례): 근배는 원래 표주박잔이라는 말로, 하나였던 박이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친다는 상징적인 그릇으로 원래 하나였다가 따로 태어나 오늘 부부로 합쳤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

◦ 合宮禮(합궁례): 혼인의 궁극적인 의미로 몸을 합치는 의식으로서 첫날밤 또는 신방이라고 한다.

바. 于歸禮 : 혼인한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귀 또는 신행이라고 한다.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치르는 절차도 다음의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요사이 는 폐백이라고 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치르는 경향이 있다.

◦ 見舅姑禮(현구고례): 예복을 갖추고 신부가 시부모와 시조부모에게 처음으로 인사 올리는 禮로 요즘 폐백이라는 말로 많이 쓰인다. 시조부모가 계셔도 시부모에게 먼저 절하고 시부에게 대추로, 시모에게 육류로 폐백을 드리고 이 때 술은 차리지 않았으며 시부모와 시조부모 외에는 폐백이 없다(김광언 외 3, 1983). 시댁 어른을 뵙는 의식이므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절하지 않고 부친 옆에 서 있는 것이 원칙이었으나(중앙일보편, 1986) 요사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절하고 있는데 부모님과 어른들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생겨난 풍습으로 보여진다. 절은 옛날에는 4번 하였는데 근래에는 2번 하고 있다.

◦ 見于尊長禮(현우존장례): 시조부모외에 시댁 어른, 가족에게 인사하는 禮로 원래 내외 예법이 엄하던 시절에는 신부가 상면하는 범위를 사촌으로 규제하였다고 하며, 같은 위계의 가족들은 한꺼번에 여럿이 상면 인사를 하기도 한다(김용숙, 1989).

◦ 舅姑禮之(구고예지): 시부모가 며느리를 맞이하는 예

◦ 饋于舅姑(궤우구고): 신부측에서 시부모에게 상을 드리고 폐백 대신 술을 따라 올린다.

◦ 舅姑饋之(구고향지): 며느리에게 시부모가 큰상을 내리는 것

◦ 이외에도 문안과 見于祠堂이 있다.

사. 觀親과 再行 :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 간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부모를 뵙는 것을 근친이라고 하고, 신랑이 다시 처가에 간다고 하여 재행이라고 한다(김종홍, 1982).

### (3) 혼례복

#### 가. 신랑예복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한복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위에 단령이라는 둥근깃의 겹옷을 입고 단령의 가슴에는 쌍학이 수놓인 흉배를 단다. 그 위에 허리에 관대를 띠고 목이 길고 술기에 붉은 선을 두른 검은색의 우단으로 된 목화를 신는다. 이러한 신랑의 예복을 사모관대라 한다(전통문화, 1985).

#### 나. 신부예복

머리에는 족두리나 화관을 쓰고 노란 삼희장 저고리와 다홍색 대란치마 위에 원삼을 입었다. 원삼은 초록 바탕에 다홍과 노랑의 색동선이 달리고 소매 끝에는 흰 한삼이 달렸다. 허리에 붉은 공단에 심을 넣어 만든 다음 봉황과 구름을 금박한 대대를 매고 머리에 용잠을 꽂고 앞댕기와 도투락댕기를 드리운다(이효순, 1988). 얼굴에는 연지근지를 찍고, 팔에는 명주 석자로 된 한삼을 걸쳤다.

### (4) 혼례시 음식 상차림

혼례절차에 관계되는 음식 상차림으로는 봉채떡, 동회상, 폐백, 큰상, 잔치상 등이다.

#### 가. 奉采餅(숙명 봉치떡)

납폐함을 받기 위한 음식으로 찹쌀 3승, 붉은 팥 1승으로 시루떡 두켜를 얹쳐진다. 반드시 찰편으로 두켜 이상은 절대로 안하는데, 두 사람이 찰떡처럼 다정하게 의합하여 살기를 기원하는 의미이고 붉은 팥은 액을 면하게 되기를 빈다는 뜻이다. 떡의 윗켜 중심에 아들 자손을 기원하는 의미로 대추를 놓고 찌는 경우도 있다.

#### 나. 同牢床(동회상, 동례상, 대례상, 조례상)

동회상은 혼례를 행하는 의례상으로 지방별 대례상 차림은 <표 3>과 같다. 대추, 밤은 결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둥근 달떡은 밝게 비추고 둥글게 채우며 살도록 기원하는 의미의 음식이다.

다. 폐백상

신부가 현구고례를 행할 때 시부모님과 시조부모님께 드리는 음식을 폐백이라 한다. 폐백음식은 각 지방이나 가풍에 따라 각기 다르나 (문음사편, 1989) 대체로 시부에게 대추와 밤, 시모에게 편포, 꿩이나 닭 또는 비단을 드렸다 한다 (윤서석, 1983). 시아버지에게 대추와 밤을 드리는 의미는 대추의 붉은색은 陽-동쪽을 의미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밤은 西쪽 나무(木)란 뜻의 음의 방위이고 밤나무는 귀신나무라 하여 두렵다는 뜻을 가졌다고 한다. 즉 시부모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공경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시어머니에게 육류(편육, 꿩, 닭), 비단을 드리는 의미는 서약은 시부에게 하고 시모에게는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먹을 것 또는 입을 것을 준비한다. 원래 폐백에는 술이 없다(혜원출판사 편집부, 1988).

<표 3> 대례상차림

지방	대례상차림
합경	사철나무, 소나무, 산닭 1-2마리, 삼색과일
황해	사철나무, 대나무, 촛불, 삼실색, 과일, 닭
서울	흰달떡, 밤, 대추, 나무로 만든 닭, 촛불, 대나무, 들축나무
경기	밤, 대추, 꽃감, 배, 사과, 용떡, 녹두부침, 콩나물, 고기안주, 소나무, 대나무, 콩, 팥, 닭은 그릇에 복어 꽃음, 대나무, 암탉, 수탉
강원	대나무, 소나무, 용떡, 밤, 대추, 꽃감, 포, 팥, 콩, 청실, 홍실 건 닭
충북	삼색실과, 밤, 대추, 화병 두개, 용떡, 산닭, 산오리, 시루떡, 쌀 미나리 뿌리 넣은 양푼 물
충남	밤, 대추, 명태포, 사과, 배, 수탉, 암탉
경북	밤, 대추, 꽃감, 포, 쌀, 송죽, 초 2개, 대야물, 용떡, 암탉, 수탉
경남	밤, 대추, 대나무, 치자나무, 사철나무, 용떡, 촛대 2개, 쌀, 수탉, 암탉
전북	참쌀 2그릇, 좁쌀 2그릇, 생든머리, 홍초1쌍, 술, 밤, 대추, 정, 홍실 느린표주, 박잔, 죽염지, 송어 2마리, 명태 2마리, 산닭 1마리, 백미, 콩, 팥
전남	촛대 2, 술잔 2, 밤, 대추, 은행, 떡, 실, 닭, 대일, 붉은 팥, 명씨

지역에 따라서는 닭과 삶은 달걀로 닭이 알을 품은 모양으로 만든 것과 약과를 고여 담은 것을 폐백으로 하며, 또는 피밤·대추·엿 등으로 폐백을 하는 고장도 있다 (윤서석, 1989).

라. 큰상

龕床, 몸상이라고도 하며 초례를 행한 신랑에게 신부 집에서, 현구고례를 행한 신부에게 시부모가 축하의 뜻으로 차려 대접한다. 큰상은 받은 사람 앞에 차려 놓은 장국상의 음식만 들고 고인 음식은 의식이 끝난 후에 헐게 되므로 망상이라고도 하며 후행간 상객이 돌아올 때 각각 담아 보내 사돈간의 음식 교환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과일, 과자, 떡 등을 화려하게 고여 담아 차리는데 생과일, 건과류, 조과류(유과, 유밀과, 전과, 다식, 당숙, 속실과 등), 각색 떡을 다섯치 높이부터 홀수 높이로 고이고, 육물로는 포육, 절육(건어류, 건문어, 건전복) 수육, 육적, 전유화 등은 과종보다 낮게 고인다. 절 올리는 사람으로 보아 앞줄과 둘째줄에 생과일과 조과품을 놓고 다음줄에 육류를 진설한다. 늦둥이에 인절미와 절편을 수북히 담고 水波蓮이라는 색스러운 조화를 가운데 꽃아 상 좌우에 놓는다 (윤서석, 1988).

(5) 혼인 축하 문구

혼인을 축하하는데 쓰이는 문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祝結婚, 祝華婚, 祝儀, 賀儀, 華燭儀(주일영, 1983)

4) 喪禮(상례)

(1) 의미

상례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근친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여 근신해 복을 입는 방법과 일정기간 동안 복을 다 입고 평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의 각종 제례의식절차를 정한 예이다 (최상수, 1988).

死는 육신이 썩어 죽는 것을 말하고, 終은 사람 노릇을 끝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死는 小人의 죽음이요, 終은 君者의 죽음을 말하는 바 死와 終의 중간을 택해 없어진다는 뜻인 喪을 쓰는 것이다 (김득중 외

3, 1989).

상례를 치름에 있어서는 지극한 슬픔이 앞서야 하고 이와 함께 예를 소홀히 해서도 안될 일이다.

## (2) 상례의 절차

최근까지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상례의 절차는 유교식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효순, 1988), 우리 민간에 행해져 왔던 전통적인 상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初終 : 초상이 난 뒤부터 졸곡까지를 말한다.

· 臨終 : 마지막 숨이 넘어 간 상태로 殞命이라고도 한다. 집안을 깨끗이 하고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북쪽에 눕힌다.

· 屬장 : 숨 거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햇숨을 입위에 놓음으로써 숨 그치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 收屍 : 숨이 끊어지면 눈을 감기고 햇숨으로 입, 코, 귀를 막고 머리는 높이고 시체를 바로 펴서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가지런히 놓는다 (혜원출판사 편집부, 1988).

· 畢復 : 復, 招魂이라고도 하며 남자 초상에는 여자가 여자 초상에는 남자가 고인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옷을 휘두르며 고인의 주소, 성명을 외 다음 '복, 복, 복' 하고 세번 부르는데 이것은 하늘·땅·공간의 세 곳에서 원혼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초혼이 끝나면 使子에게 혼신을 편히 모시고 가라는 의미에서 사자밥 (밥 세 그릇, 짬신 세 켄레, 술 석잔, 동전)을 대문 밖에 차려 놓는다.

· 發喪 : 자손들이 머리를 풀고 옷을 갈아 입어 상제의 모습을 갖추어서 초상한 것을 밖에 알리는 것이고 상주와 주부, 호상, 司書, 司貨를 정한다.

· 奠 : 망자가 살았을 때와 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시신의 동쪽에 놓인 제상 위에 술, 과일, 포, 젓갈(식혜)을 올려 놓는다. 관을 만들도록 하고, 친척·친지에게 고인의 사망을 알리는 訃告를 한다 (김성배, 1983)

## 나. 襲과 殮

· 襲은 향나무, 썩 삶은 물에 시신을 씻기는 것이고 숨이 끝나면 襲囊을 지내는데 과일, 포, 감주 등을 차려놓고 곡만 하고 절을 하지 않는다 (최상수, 1988). 습전이 끝나면 곧 이어 飯舂(시신의 입안에 구슬과 쌀을 물려준다)을 하는데 이는 돌아가신 후 잘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김동욱, 1989).

· 殮은 숨이 끝난 후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소렴(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것)과 대렴(소렴 뒤 시신을 入棺하는 의식)으로 나눈다.

· 습과 염이 끝나면 영혼이 의지할 곳으로 영좌를 만들고 銘旌(붉은 비단에 흰 글씨로 고인의 관명, 본관, 성명을 적은 것)과 魂帛(신주를 만들기 전에 마포나 백지로 접어 만든 임시 신위)을 모신다.

다. 成服 : 대렴한 뒤 상제와 복인들이 복제에 따라 상복을 입는 절차전에는 아침에 해가 뜨면 조전, 저녁에 해가 지면 석전을 올리지만 입관후에는 조석전에 식사시간에 상식을 올린다.

라. 治葬 : 장지로 가서 매장하는 절차.

장지에 가서 산역을 하고 사토제를 지낸다.

· 遷柩 : 영구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

· 發柩 : 영구가 장지를 향하여 떠나는 것

이 때 遣奠(발인제)이라고 하여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은 다음 상주이하 모두 곡하고 절한다.

· 運柩 : 영구를 운반하여 장지까지 가는 것

· 下棺 : 관을 광중으로 넣는 것. 하관이 끝나면 구의와 명정을 덮는다.

· 成墳 : 흙과 회로 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들고 성분제를 지낸다.

· 反哭 : 장례가 끝나고 귀가하면서 곡하는 것.

## 마. 장례후의 祭儀

· 奠祭: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로 초우는 장례 당일, 재우는 초우를 지낸 후 柔日 아침에, 삼우는 재우를 지낸 剛日 아침에 지냈으나, 요즘에는 장례 후 3일에 성묘하고 삼우제를 지내는 경우



가 많다.

° 卒哭: 곡을 그친다는 뜻으로 졸곡이 지나면 곡을 하지 않는다. 원래는 삼우제 뒤에 택일하여 지냈으나 근래에는 삼우와 함께 치르기도 한다.

° 사십구제·백일제: 장례후 49일(100일)째 되는 날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지내며, 원래 불교의식이므로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올린다.

° 小祥·大祥: 고인이 돌아가신 지 만 1년(2년)되는 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

° 翼祭: 북을 다 벗는 제사로서 담제를 탈상이라고 한다. 오늘날은 흰옷을 오래 입을 수 없기 때문에 탈상일을 100일로 하는 것이 좋다.

(3) 상례에 관련된 의복

상례에 관련된 의복은 시신에게 입히는 壽衣와 상제들이 입는 상복으로 대별된다.

가. 壽衣 : 옛날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 계신 집안에서는 윤년이나 윤달을 택해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기도 했으나, 근래에는 장의사가 알선하는 곳에 맡길 수도 있게 되었다.

수의감으로는 비단, 마직, 고운 부포나 베로 하고 흰색을 주로 쓰나, 집안 법도나 고인의 소원에 따라서 화려한 색으로 하기도 했다 (이효순, 1988).

전통적인 수의는 다음과 같다.

° 남자수의 : 바지, 저고리, 속바지, 두루마기, 도포, 명목(얼굴 가리개), 악수(손 싸개), 엄두(머리 가리개), 버선, 신, 조낭(손, 발톱을 깎아 넣는 주머니), 소렴금·대렴금·천금(이불), 지금(요), 베개

° 여자수의 : 속곳, 바지, 단속곳, 치마, 저고리(속저삼·속저고리·겹저고리) 원삼, 명목, 악수, 엄두, 버선, 신, 조낭, 소렴금·대렴금·천금, 지금, 베개

이상의 수의 일습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근래에는 고인이 좋아하던 옷을 입혀 곱게 화장하여 시신을 묶지 않고 입관하기도 한다.

나. 상복

° 상주 : 屈巾祭服(최의), 요질(허리띠), 수질(머리띠), 굴건, 행전, 짚신, 상장(父喪: 대나무 지팡이, 母喪: 버드나무나 오동나무 지팡이),

° 주부 : 깃광복 치마, 저고리, 大袖長裙, 수질, 요질, 짚신, 상장

° 복인 : 남자 - 건, 행전(결혼전에는 행전만)

여자 - 흰치마 저고리, 나무비녀(김관봉, 1981)

이상의 상복은 전통적인 상복이고, 현대에는 남자는 흑색 양복, 흰 와이셔츠, 흑색 넥타이, 흑색 양말을 착용하고 여자는 흰 치마 저고리를 착용하기도 하며, 복인들은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만든 리본이나 완장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문상객의 복장은 흑색 정장 차림으로 하되 와이셔츠는 흰색으로 하고 구두, 양말 등 소품도 흑색으로 통일한다. 여자는 흰색 옷도 무방하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조문에는 정식 상복을 입고 가면 고인의 죽음을 예상한 것 같아 오히려 실례가 되므로 수수한 평복차림으로 가는 것이 좋다.

(4) 상중의 음식

상중에는 망극하여 음식을 먹게 되지 않는다 하여 슬프고 초종을 관장하느라 긴장된 상태에 있는 상주의 건강을 염려하여 이웃에서 미음 등 유동식을 마련하여 주기도 하였다.

옛날에 짐승으로부터 유해를 지키기 위해 밤샘을 하며 유해를 돌보던 습관이 밤샘의 기원이라고 하는데(중앙일보편, 1983) 밤샘하는 주객들에게는 국수 등의 가벼운 음식으로 밤참을 대접했으며, 조상을 마친 조객들에게는 차대접으로도 충분하였다.

상중의 제사는 집안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메, 탕, 면, 포, 혜, 편, 과일, 적, 나물, 김치, 편청, 간장 등을 제수로 갖추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은 산 사람의 밥상과 같이 밥, 국, 나물, 김치, 구이, 조림과 같은 반찬과 함께 냉수, 승능을 차려 올린다 (김광언 외 3, 1983; 윤서서, 1983).

## (5) 상중의 예절

• 종래에는 친척과 친지들이 문상시에 贈儀로 배, 팔죽, 초, 술, 돈을 보내고 여자들은 상복 만들기를 거들었다 (최상수, 1988).

• 부의, 香奠 (김성배, 1983).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읍니다. 삼가 조의를 포함합니다.

• 문상시 위문의 말 (정몽화, 1982; 주월영, 1983).

## \* 부모의 상

• 조객 :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상사말씀 여쭙 말씀이 없습니다. 大故의 말씀을 무엇이라 여쭙리까?

• 상주 : 오직 망극할 따름입니다.

## \* 배우자의 상

• 조객 : 천봉지통(남편이 죽은 슬픔)을 무엇이라 여쭙리까?  
고분지동(아내가 죽은 슬픔)  
상사(상배)말씀 여쭙 말씀이 없습니

다.

• 미망인 : 그저 하늘이 무너진 듯 하옵니다. 눈앞이 캄캄하옵니다. 살아 있는 것이 죄스럽기만 합니다.

• 남편 : 그저 땅이 꺼진 듯 합니다. 앞날이 막막하옵니다.

## \* 기타의 상을 당한 복인에게

• 조객 : 복제말씀 무엇이라 여쭙리까? 복제 말씀 여쭙 말씀이 없습니다.

복인 : 오직 슬플 따름입니다.

## \* 아랫사람의 상을 당한 어른에게

• 조객 :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십니까?

위문의 말씀 여쭙 길이 없습니다.

• 상을 당한 어른 : 그저 제가 박복한 소치입니다. 인사받기도 부끄럽습니다.

## 3. 가정행사

## 1) 생일

## (1) 유래

생일은 세상에 태어난 날, 또는 해마다의 그 달의 그 날을 말하는데, 이 날에 음식을 차려 친척과 이웃을 모아 잔치하는 풍습이 있는 바,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고, 중국에서는 제·양나라 때에 생겨 당·송나라 이후로 널리 퍼졌다. 생일을 기념한다는 일은 시간관념이 발달된 민족이 아니면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의 일부에서는 계산은 사악이고, 더구나 시간은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世代를 구분하는 연령집단은 있으나 연령의 계산이나 생일기념행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족들은 생일은 인생의 어느 단계로부터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느 민족에 있어서는 이 시기가 선악의 신령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위기점이라고 보고 있다. 생일날(생일이 되는 날, 또는 생일인 그 날)에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1년에 한번씩 축하하고 축하받는 것은 인간의 常情이며, 의의있는 일이었다

이 날을 기하여 일년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의 건강·무사·장수·영화를 축원하며 기리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남을 축하하는 명칭이 백일·돌·두돌·세돌·생일·육순·회갑·진갑·고희 등으로 부르며 옛날부터 이에 대한 習俗이 있어왔다. 전래되는 풍속은 지방과 생활여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치성을 드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동아출판사편., 1986; 신기철 외 1, 1978).

## (2) 절차의식

생일을 축하하는 절차의식에 있어서 두가지 면에서 고찰해 본다면, 하나는 부모가 아직 미성년인 아이를 위하여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른의 생신에 있어서 가족과 자녀가 축하하는 절차의식이다. 먼저

아이의 생일에 있어서 돌잔치는 매우 성대하였다

(돌 편에서 설명). 그리고 두들과 세들에 이어 매년 돌아오는 생일에 의미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여 먹었다. 그리고 생일맞이(생일 때에 음식 따위를 차려 놓고 무당을 시켜 신령에게 복록을 비는 일)와 생일불공(생일에 올리는 불공)을 하여 장수복록을 축원하였다. 어른의 생신에는 장성한 자식들이 생신상을 차려 드리고, 부모님께 만수무강을 빌며 절을 올렸다. 또한 생일잔치(생일에 베푸는 잔치, 孤宴 또는 壽宴)를 벌이고 여기에 출타한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모두 참가하여 흥겨운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어른의 생신에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의 배우자인 아내나 남편이 함께 축하를 받는 것이 상례이다. 연세가 높아질수록 주위에서 생일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기억하게 된다.

현대에 와서는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서구적인 생일케이크 자르기와 생일파티의 방법이 도입되었다. 아이들의 생일에서부터 생일케이크는 꼭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친구들을 초대하여 생일 파티를 열어 주는 것이 보통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일을 기억하던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생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생신에도 생일케이크와 생일파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생일케이크는 스펀지 케이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위에 흰색 또는 초코렛색의 크림으로 해피 버스데이(Happy birthday)라고 쓰거나 생일 당사자의 이름을 쓴다. 그리고 생일 당사자의 나이와 같은 수의 양초(나이가 많으신 분의 경우에는 1개의 조금 굵은 양초가 10개의 양초를 대신하여 나이 10세를 뜻하기도 한다.)를 케이크 위에 돌려 꽂고 불을 켜다. 생일인이 한번에 불어서 불을 모두 끄면 좋다고 하며, 이는 1년 내내 행복과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뜻이라 한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행사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행사가 되었다.

생일파티의 경우에도 생일케이크는 꼭 준비하는 것으로 파티의 순서에서 중요한 절차가 되었다. 생일파티는 초청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5일 내지 일주일쯤 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우송하고 또는 전화로도 미리 정중한 초대의 뜻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초청범위도 알려주면 오는 분들이 참작할 수 있다. 초대

를 받은 사람들은 성의껏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너무 적거나 너무 과하지 않도록 자신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 좋을 것이다.

### (3) 의복

생일에 대비하여 미리부터 그 날에 입을 옷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생일비움(생일에 차리는 의관 따위, 줄임말: 생일빔)이라 한다. 생일을 맞는 사람을 위하여 의복 일습을 만들어 입혔으며, 옷을 만들 때에도 축복하는 뜻에서 정성을 다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한복을 입는 기회가 적어지고, 기성복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므로 아이나 어른이나 옷을 만들기가 보다는 구입하여 입는 것이 편리하여 새옷을 사서 생일비움으로 마련한다.

### (4) 음식

아이의 생일에는 미역국과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반찬과 떡 또는 생일 케이크를 준비한다.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습속은 서양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되었는데, 축하 케이크 위에 나이 수 만큼의 촛불을 꽂아놓고 생일 당사자는 단숨에 촛불을 모두 끄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믿는다. 요즘에는 케이크 대신 떡을 케이크 모양으로 장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어른의 생신에는 아침에 진지상, 저녁에 국수상을 보는데,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손님을 초대하여 상을 차릴 때는 국수상에 진지를 곁들이기도 한다. 정식 국수 상차림에 오르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1. 온면이나 냉면 2. 신선로 3. 편 4. 김치
5. 전유어 6. 제육편육 7. 약과 8. 잡채
9. 수란 10. 어채 11. 어회 12. 찜
13. 육회 14. 건포 15. 화채 16. 유과
17. 정과 18. 생과 19. 약주

간단한 국수상 차림으로는 온면이나 냉면, 편, 전유어, 잡채, 생과를 차린다 (주월영, 1983).

## (5) 언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일에 있어서 어른의 경우는 生辰이라고 하는 높임말이 있다. 따라서 부모님은 물론 형님의 경우도 손윗 사람이므로 생신이라고 해야 한다. 생일의 높임말에 生辰 이외에도 先聖, 수신, 호신, 그리고 임금에게는 誕日 또는 誕辰으로 구별하는 습속이 조선조 근대부터 있었다.

생신을 일컫는 말에 육순, 칠순, 팔순, 구순이 있다. 또한 특별히 기억하고 축하하는 생신에 61세의 回甲, 還甲 또는 華甲, 62세의 進甲, 칠순인 古稀 등으로 이어진다. 그밖의 용어에 대해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어색하기도 하다(예: 喜壽, 米壽, 白壽). 생일 인사말에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말은 “생일을 축하합니다” 또는 “생신을 축하합니다”이다. 그리고 “얼마나 기쁘십니까?”와 “건강하십시오” 또는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 특별히 환갑이나 고희 등의 잔치에서 獻壽를 할 때는 “만수무강 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조선일보, 1991.2.5/ 2.17)라는 좋은 말이 있다.

## (6) 선물과 노래

생일선물로 주고받는 물건 가운데 의류, 장난감, 침구, 음식물, 골동품, 화초 등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 생일이나 어른 생신에 또는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 간에는 현금을 단자에 싸서 축하의 文句를 적당히 써넣어 드리기도 한다. 현금 선물인 경우에는 현금을 그대로 봉투에 넣는 것보다는 “祝壽宴” 또는 “수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와 같이 정중하게 적어 넣고 현금을 돌려 쓴 뒤 봉투에 넣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선물을 준비하였을 경우에는 깨끗하고 예쁜 종이로 포장을 하면 선물을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도 의미를 더하여 기쁘다. 선물포장은 외국식이 보편화 되었으나 요즘에는 한지가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고 있으

므로 한지를 이용하면 더욱 돋보인다.

생일인 사람에게 축하하는 마음과 뜻을 표현하는 방법은 음식상을 드리고 절을 하고 선물을 드리는 것이 외에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서 흥겨운 분위기를 만든다. 생일 축하 노래는 요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를 부르는 게 보편화 되었으나 우리 노래도 생일 축하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가사는 다음과 같다.

『햇빛보다 찬란히 샘물처럼 드뭇게 은누리 곱게 곱게 퍼지옵소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니다. 00의 생일을 축하합니다.』(조선일보, 1991.2.20).

또한 生日歌에 조선시대 시조작가인 농암 이현보(李賢輔:1467-1555)가 자신의 생일에 지은 시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공명(功名)이 그지 이실가 수요(壽夭)도 천정(天定)이라, 금서(金犀) 띄 구븐 허리에 팔십강춘(八十降春)의 몇 회오, 연년(年年)에 오노 나리 역군은(亦君恩) 이샷다』 <벼슬을 버리고 귀향한 지 10여년된 85세에 생일에 지은 시조> (동아출판사 편집부, 1986).

MBC 문화방송국에서는 생일 및 결혼 노래를 공모한 것 중, 입상작 16곡을 인기가수들이 부른 축하노래 음반을 출판하여 보급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래들은 부르기 쉽고 의미있고 좋아야 할 것이다. 남녀 노소 누구나 생일에 즐겨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노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남의 노래를 번역하여 부르는 것은 원어와 달리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 2) 移徙(이주, 이사)

## (1) 유래

이사란 집을 옮김, 살림하는 곳을 다른 데로 옮김의 뜻이며, 移家 또는 移轉이라고 고도 한다.

농경사회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은 대대로 자손에게 집과 땅을 물려주었으므로 이사를 하지 않고 살았다. 다만 이사를 할 때는 집을 개축 또는 증축, 신축을 할 경우였기 때문에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았고, 특히 신축

하여 이사한다 하여도 그 동네에서 움직였으므로 요즘의 이사 개념과는 달리 생각된다.

그리고 농사지를 땅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부득이 그 지방을 떠나야 할 경우가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짐 몇 개의 이삿짐을 꾸려 가지고 식구대로 등에 메고 또는 동물이나 마차에 실어 정처없이 떠나는 이사를 하였다.

국가의 전쟁사태 또는 유사시에 불가피하게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야하는 이사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요즘의 이사문화와는 사회적 환경이 매우 다른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이 40 - 50년간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산업화 되면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현상이 급속화 되었다. 농촌과 소도시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비하여 대도시의 인구는 이미 수용의 한계를 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생활조건이 달리 형성되므로써 이동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사의 이유 가운데 생활조건이 편리한 곳으로 옮기는 것, 즉 교통, 시장, 학교, 문화, 관공서, 주변환경 등의 조건을 따라 이사 하는 것과 가정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에 맞추어 더 큰 집과 더 많은 수의 방과 가정경제의 성장량 만큼의 집을 구하여 이사하는 것, 그리고 최근들어 많이 볼 수 있는 재산증식의 과다한 욕구 행동인 투기심리에 의한 무리한 이사가 많이 있다.

이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사람들은 내집에 살든지 남의 집에 세를 살든지 이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사의 풍속도가 생겨나고 이사문화가 형성되어 우리의 생활문화로 포함되게 되었다.

근대화 초기에는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의 직업 따라, 직장 따라 가족 모두가 함께 이사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도시가 비대해진 후, 특히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 이사하여 살게 된 많은 가족들은 가정의 전출입시에 본인만 옮기는 부분 이사의 현상도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방 도시에는 잠정적 독신자들이 많고 주말에만 합류하는 가족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이동 현상에는 사람들의 상호 왕래를 통한 생활문화가 형성되는 데, 이사 당사자와 친지들은 이사하는 집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재

산도 번성하기를 축원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하는 날은吉日을 택하여 하였는데, 요즘에는 주말을 이용하는 것도 보편화되었다.

## (2) 행사

이사에 관계하는 행사는 이사하는 집에서 있게 된다. 살던 집을 떠날 때 청소를 깨끗이 하지않고 가는 풍습도 있는데, 이는 너무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물질과 재산을 쓸어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집을 새로 지어 이사하는 경우나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경우에 告祀를 드리고, 터를 누른다 하여 손님들을 초대하여 음식접대(집들이)를 하고, 또한 친척과 아는 사람들은 이사한 집을 한번씩 방문하는 것이 예사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이 터를 잘 누른 것이 된다. 그리고 이사는 富와 관련지어 첫날밤에 부자되는 꿈을 기대한다. 집은 바로 재산이고, 그 집에서 재산이 더욱 불어나는 것을 기원한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그런 의미의 물건들을 가장 많이 선물로 준비하는데, 비누거품이 대표적인 것이다.

## (3) 의복

이사에 관련하여 의복은 별 다르지 않다. 다만 새집에서 새옷을 입는 것이 잘 어울릴 것이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동안에는 옷에 신경을 쓸 틈이 없으나 짐을 정리하는 가운데 묵은 물건 중 버리기도 하고 더러는 새물건을 사기도 하여 기분을 더욱 새롭게 한 다음에는 옷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손님초대시에는 주인으로서 의복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단장하고 손님들을 맞아들이게 된다. 한복은 차츰 불편하여 입지 않게 되고, 홈 웨어(home ware)라고 하는 편리성과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한 평상복을 입는 것이 보통이다.

## (4) 음식

이사와 관련하여 준비하는 음식에는 팔떡과 팔죽이 있다. 팔은 잡귀를 물리친다 하여 많이 쓰인다. 특히 떡을 많은 사람과 나누어 먹어야 좋다고 하여 이사할 때 떡은 미리 준비하여 이사할 집에 짐보다 먼저 가져가서 고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조금씩 이곳 저곳에 떠 놓았다가 먹는다. 짐을 옮기는 사람과 이웃들에게 떡이나 죽을 전달한다. 준비한 음식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좋다고 한다. 요즘에는 죽은 별로 준비하지 않고 주로 팔떡을 한다. 떡이나 죽을 받은 이웃사람들은 그릇에 비누 한 두장을 싸서 함께 돌려 보내기도 한다. 이것은 달래이면서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본적 예의를 몰라서 달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손님초대시의 음식장만은 생일, 명절과 같은 때에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더 풍성하게 음식들을 장만하여 대접한다. 음식을 전통식으로 고자상에 차리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한국음식도 뷔페(buffe) 상차림으로 차리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음식만이 아니라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서양요리나 중국요리 등도 준비하여 함께 내기도 한다. 따라서 손님초대 방식도 절충식이다.

#### (5) 언어

옛날에는 이사를 자주 하지 않는 풍습이라서 이사를 잘 다니는 사람은 뜨내기라 하여 멸시하였다. 즉 어느 한 곳에 눌러 살지도 않고 고향도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므로 뜨내기는 무시를 당한 것이다. 이사꾼(이사를 하는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대접받지는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누구나 이사를 하므로 이사하는 자체에 대하여 경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사는 누구에게나 번거로운 일로 생각되 가정행사이다. 그러므로 이사를 하면 큰 일을 한 것이고 또한 축하를 받게 된다. 이사를 축하하는 인사는 “축하합니다”, “부자 되십시오”, “좋은 꿈 꾸십시오”, “돼지꿈을 꾸셨습니까?”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좋은 집(또는 큰집)에 이사하셔서 얼마 나 좋으십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라고

도 인사를 한다.

이사에 관계되는 속담에 『이사할 때 강아지 따라다니 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강이로 자꾸 따라다니며 귀찮게 가로거침을 이르는 말이다.

#### (6) 선물

이사한 집에 인사를 갈 때 사람들은 그 집에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물건을 선물로 가져간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습으로 가장 많이 선물하는 것은 성냥과 비누이다. 성냥은 불을 의미하여 불처럼 일어나라는 뜻이고, 비누는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거품이 나는 물건이므로 부자가 되라는 뜻을 담은 선물이다. 즉, 비누거품처럼 재산이 불어나기를 기대한다는 축하의 선물이다. 성냥은 용도가 별로 없으므로 최근에는 잘 선물하지 않는다. 비누 중 가장 많이 이용되던 것은 빨래비누(고형)였으나, 요즘에는 세계의 종류가 다양하고 또한 거품이 일거나 물에서 더 불어나는 것으로 설겅이용세제 세탁기용 세제, 그리고 치약이나 휴지, 세수비누 등이 활용된다. 그러므로 어느 집이나 이사하고 보면 세제, 휴지등은 가장 많이 쌓이게 된다.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구나 장식품 등이 선물되기도 한다. 실용품으로 시계를 장식품화하여 다양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계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이사하는 기회에 바꾸기도 하고 또 시계가 방마다 놓여지게 되므로 여러 개라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밖에 그릇류, 화분, 전자제품도 이사선물로 많이 쓰여지는 물건들이다. 어떤 물건을 선물로 하던 간에 새 집에 이사한 것을 축하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이므로 어떤 선물이든지 받는 입장에서는 고맙고 기분이 좋은 물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선물이 쓸모가 없던가 집주인의 취향에 전연 맞지 않던가 하면 그러한 물건은 사용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도 있어서 물질이 낭비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이 사시에 들어온 물건은 남에 주면 재복이 함께 나간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사장시키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선물이란 어떤 경우이든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것이므로 생활필수품 중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는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미리 물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어느집이나 거울, 화분대, 우산

꽃이, 정리선반, 쿨선, 방석, 식탁보, 그림, 자명종 시계, 실내화 등의 작은 물건들이 필요할 것이다. 너무 큰 물건은 선물이라도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닌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선물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선물은 뇌물이 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 받는 선의가 없어지고 마음 무거운 물건으로 남기 때문이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생활문화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과 함께 급속히 사라져 가는 전통생활문화를 파악하고 보존하기 위해 생활문화의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현대적인 생활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변용,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여 보급, 확산시키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생활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흔적이며 삶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계승·유지되고 있는 가정행사로서 세시풍속 중에서 설과 추석, 동과의례로서 들, 혼례, 회갑, 상례를, 기타의 가정행사 중에서 생일과 이사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인간은 어떤 것이든 가정적·직업적인 일을 하며 살기 위하여는 먹고, 입고, 쉬어야 하며, 대화하고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지키고 정서적인 생활을 하여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방법은 옛사람들의 생활바탕 위에서 시대적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며 변천해 왔을 것이며, 앞으로도 알게 모르게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전래의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키려면 생활문화의 유지발전시켜야 할 전통적인 것은 생활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으로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새로운 것을 전통적인 것에 어떻게 접근시켜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현생활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전통생활문화를 찾아내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대의 생활문화의 양상을 파악하여 과거·현재·미래의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의 여유가 생기면 옛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가정생활문화의 계승은 그 문화의 의미나 유래 등은 전통성을 그대로 알려주고 현실의 생활에 맞게 지켜나가되 성별, 연령별, 소득이나 사회계층별,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급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생활문화 내용이 다른 것들은 금전적 부담 때문이라고 해석된다(예: 혼인시 폐백하기·돌떡받기 선물하기 등). 그 밖에도 생활의 여유가 없어서 생활문화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전통적인 생활문화 내용 자체가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최근에 와서 생활문화의 전통성을 이어나가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의 경제적 생활이 향상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세일 속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분수에 맞는 가정생활을 통하여 생활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여건이 구성되어야 한다(생활개념이해·책임·역할·여가·예의에 대한 상호이해 등)

가정행사인 설·추석·들·혼례·상례·회갑·생일·이사시의 의·식생활·언어 및 예절생활의 내용이 연구되었다. 가정행사 각각에 대하여 전통적인 방법과 현재의 실시방법을 표로 작성하고, 앞으로 가능성과 적합성을 고려한 새로운 모형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로 작성되어 제시된다면, 각 가정에서는 분수와 조건에 알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모형을 몇 가지로 제시할 때 각각에 대해 적합한 경우와 이유를 첨부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다.

가정마다 다르다고 하여도 한고장 사람들은 비슷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문화의 한국적 전통 형태 내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역성을 한국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을 동일화하여 하나로 묶으려는 것은 무리이며 지역인들의 교류와 이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생활문화는 동일화되어 나갈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무학, 한국의 세시풍속기, 집문당, 1987.
- 강신표, 가족주의적 문화전통, 전통문화, 1986(10).
- 김관봉, 관혼상제, 태서출판사, 1981.
- 김강언, 민속놀이, 대원사, 1991.
- 김강언, 이광규, 이현희, 하효길 편, 가정의례대백과, 한도문화사, 1983.
- 김도기, 혼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김동욱, 최인학, 최길성, 최래욱, 한국민속학, 새문사, 1988.
- 김득중, 식생활: 차례준비와 예법, 식생활개선 범국민운동본부, 1991.
- 김득중, 유송옥, 황혜성,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8.
- 김명자, 동국세시기, 다락원, 1985.
- 김명자, 한국민속학 16: 세시풍속 순환의 의미, 민속학회, 1983.
- 김성혁, 관혼상제, 하서출판사, 1990.
- 김성배, 한국의 민속, 집문당, 1983.
- 김성원, 한국의 세시풍속, 명문당, 1987.
- 김용숙, 한국여俗史, 민음사, 1989.
- 김종홍, 한국의 혼속연구, 대성문화사, 1982.
- 김현영, 전통혼례의 사회교화적 의의,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나문숙, 세시풍속에 관한 주부들의 관심도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동아출판사편, 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6.
- 마당, 마당 여성대백과 미즈 16: 생활예절·직장생활, 마당, 1987.
- 민속학회편, 의식주·관혼상제 민속이론, 1990.
- 민제, 의례생활: 회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민속대관 1: 사회구조·관혼상제),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82, 566-574.
- 박혜인, 한국의 전통혼례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8.
- 서문당편집국, 새생활 대백과 5: 에티켓·사교·서한·교양, 서문당, 1971.
- 신기철, 신용철, 새 우리말 큰사전, 삼성출판사, 1978.
- 심우성, 한국의 민속놀이, 대광문화사, 1986.
- 안은희, 庶俗의 研究: 충북지방 산속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 안은희, 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민속대관 1: 사회구조·관혼상제),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532-565.
- 안지영, 현대를 사는 생활예절,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87.
- 예서원편집부, 예, 영개교육사, 1987.
- 유재천, 오늘의 문화정책과 방향, 전통문화, 1986(10).
- 윤서석, 통과의례음식, 한국음식오천년, 한국음식문화오천년전 준비위원회, 유림문화사, 1988.
- 윤서석, 한국음식: 역사와 조리, 수학사, 1980.
- 윤서석, 한국의 전래생활, 수학사, 1983.
- 이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일지사, 1988.
- 임동진,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9.
- 장주근, 한국의 세시풍속, 형설출판사, 1989.
- 정몽화, 예절, 형설출판사, 1988.
- 조기홍, 박경자, 예론,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88.
- 조양제, 관혼상제, 일신서적공사, 1989.
- 주월영, 예법사전, 수학사, 1983.
- 중부매일, 설날, 중부매일신문사, 1991/2.
- 중앙일보편, 21세기 여성대백과 Labelle 15: 생활칼렌다·가정의례·가정법률, 중앙일보사, 1986.
- 최상수, 관혼상제, 태서출판사, 1990.
- 최상수, 한국 민속문화의 연구, 성문각, 1988.
- 충청일보, 가정의례준칙 사문화, 1991/10/29일자, 1991.
- 킨 편집부, 생활매너북, 동아출판사, 199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고려원, 1984.
- 한도문화사, 가정의례백과, 1983.
- 한복선, 명절음식, 대원사, 1991.
- 한복선, 전통음식, 대원사, 1990.
- 한중수, 관혼상제, 명문당, 1985.



혜원출판사편집부, 현대인을 위한 새생활 가정정보감,  
혜원출판사, 1988.

황혜성, 음식 및 상차림(5장),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알기 쉽게 풀이한 우리의 전통예절: 전통문화  
16), 1988, 387-414.